



[뉴스]  
트럼프 관세폭탄 터지는데  
파업 나선 현대차 노조  
02

# 분양가 누르는 HUG, '로또 청약' 부추긴다

(주택도시보증공사)

고분양가 관리지역 단지  
인근 아파트 평균 매매가의  
110% 이하여야 보증 발급  
시세보다 낮은 분양가 책정

주택도시보증공사(HUG)가 사  
실상 분양가를 규제하면서 각종  
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.

건설사와 HUG 간 분양가 씨름  
으로 아파트 분양 일정이 줄줄이  
미뤄지고, 일부 지역에선 '로또 청  
약' 아파트가 등장해 투기 수요를  
부추긴다는 지적이다. 과도한 집  
값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  
가 오히려 실수요자에게 부담을  
주는 모양새다.

## ◆분양가 조세에 '일단 연기'

11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 
최근 HUG가 지정한 '고분양가  
관리지역'에 편입된 단지의 분양  
이 미뤄지고 있다.

현재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



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의 분양가 규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. 최근 '로또 청약' 단지로 눈길을 모았던 고덕 자이 견본주택 현장. /채신화 기자

통해 공공 택지 분양 시 택지비·  
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이윤을

이다.

HUG는 분양가가 최근 1년간  
인근에서 분양한 아파트 평균 분  
양가의 최고치를 넘거나 주변 시  
세의 110%를 넘으면 분양 보증 발  
급을 거부하고 있다.

그러나 HUG가 고분양가 관리  
지역에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 
단지에 분양 보증을 거절하는 식  
으로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. 사

HUG는 분양가가 최근 1년간  
인근에서 분양한 아파트 평균 분  
양가의 최고치를 넘거나 주변 시  
세의 110%를 넘으면 분양 보증 발  
급을 거부하고 있다.

그러나 기준을 '최근 1년'으로  
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세보다  
훨씬 낮은 분양가가 책정되기도  
한다. 분양가를 두고 건설사와 H

## 〈고분양가 관리지역 변경 전후〉

| 구분       | 변경 전  | 구분       | 변경 후  |
|----------|---|----------|---|
| 관리<br>지역 | ·서울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,<br>강동구<br>·경기 과천시                    | 관리<br>지역 | ·서울 전자자구<br>·경기 과천시<br>·세종시*, 성남 분당구,<br>대구 수성구 |
|          | ·서울 전자자구<br>(관리지역 제외)<br>·부산 해운대구, 남구, 수영구,<br>연제구, 동래구 |          | ·부산 해운대구, 남구, 수영구,<br>연제구, 동래구                  |

\*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분양가상한제 시행지역으로 고분양가 관리 미시행.

UG 간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이  
유다.

서울 용산구 '나인원한남'은 분  
양가 책정을 놓고 시행사가 HUG  
와 6개월간 줄다리기를 했다. 당  
시 시행사인 대신F&I는 인근 '한  
남더힐'의 시세를 감안해 3.3m<sup>2</sup>당  
6360만원을 책정했다. 그러나 H  
UG는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인  
'인근 아파트 평균분양가 또는 평  
균매매가 110% 초과'를 이유로 분  
양 보증을 거절했다. 협상이 길어  
지자 대신F&I는 결국 나인원한

남의 분양방식을 '임대 후 분양'으  
로 전환했다.

'래미안 서초우성1차'도 같은  
이유로 3개월째 분양이 미뤄지고  
있다. 인근 '신반포 센트럴자이'의  
분양 가격을 고려하면 서초우성1  
차의 분양가는 3.3m<sup>2</sup>당 4200만~  
4300만원이 될 전망이다. 그러나  
조합이 기대하는 분양가에 못 미  
쳐 협의가 쉽지 않은 상태다.

이 밖에도 강남에선 강남구 삼  
성동 상아아파트 재건축 단지, 서  
초구 삼호가든맨션3차 재건축도

당초 지난 5월 분양에서 분양 일정  
이 미뤄지고 있다.

청량리 4구역에 들어서는 '청량  
리 롯데캐슬 SKY-L65'도 분양가  
협의가 힘들 전망이다. 재개발 조  
합은 주변 시세를 고려해 3.3m<sup>2</sup>당  
2600만원의 분양가를 기대하고 있  
다. 그러나 업계에선 HUG의 보  
증 심사를 통과하려면 2000만원  
전후로 분양가를 낮춰야 할 것이  
란 관측이 나온다.

## ◆'로또 청약' 양산… '혁(HUG) 소리 나네'

분양가가 지나치게 낮아지는  
것도 문제다. 투기성 청약으로 실  
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  
문. 최근 나타난 '로또 청약' 열풍  
이 그렇다.

로또 아파트는 HUG의 분양 보  
증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분양가  
를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낮춰 저  
렴하게 분양하는 아파트를 말한  
다.

(3면에 계속)

/채신화 기자 csh9101@metroseoul.co.kr

# 대한민국



인도 떠나는 文 대통령 내외

3박 4일의 인도 국빈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1일 오전(현지시간) 뉴델리 팔람 공군공항에서 싱가포르로  
향하며 인사하고 있다.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13일까지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한다.

# '최저임금 심의' 또 파행 사용자위원 보이콧 선언

업종별 차등 적용안 부결에  
경계에 "앞으로 회의 불참"



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  
한이 이를(14일) 앞으로 다가왔지  
만 최저임금위원회가 또 다시 파  
행을 빚고 있다.

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반  
발했던 노동계가 일부 복귀해 겨  
우 정상화된 지 보름도 안돼, 이번  
에는 경계계가 '업종별 차등 적  
용'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  
참 선언을 한 것. 가뜩이나 경계계  
와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폭 차  
이가 큰 가운데 앞으로 남은 회의  
는 13일과 14일 두 차례 밖에 남지  
않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  
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.

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 
지난 10일 제12차 전원회의에서  
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내  
용을 담은 '2019년 최저임금의 사  
업별 구분 적용안' 논의가 노사간  
이견을 좁히지 못해 표결을 진행  
했다.

표결 결과, 출석위원 23명(근로  
자위원 4명 불참) 중 14명이 반대  
해 부결됨에 따라 올해와 동일하  
게 내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  
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  
하기로 결정했다.

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사용자  
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"소상공  
인 업종의 근로자는 3분의 1 이상  
이 실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 
있는 상황"이라며 "존폐의 위기

에 내몰려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

별다른 대책도 없이 근로자 3분

의 1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하  
는 최저임금 심의의 참여는 더이  
상 의미가 없다"고 밝혔다.

그러면서 사용자위원들은 앞으로 회  
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장을 분명  
히 했다.

경계계의 보이콧 선언에 이날  
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 
위 제13차 전원회의는 공의위원  
과 근로자위원 만이 참석한 채 진  
행됐다.

김 위원장은 "사용자 측의 무책  
임한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  
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즉  
각 복귀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 
에 책임 있게 임하길 바란다"고 지  
적했다.

/세종=최신웅 기자

# 6월 취업자도 10만명대… 5개월째 '일자리 쇼크'

## 통계청 6월 고용동향

제조업 취업자 12.6만명 ↓  
전체 취업자둔화에 영향

지난달 취업자 증가 수도 10만  
명대에 그쳐 최근 5개월 동안 취업  
자 증가 폭이 10만명 전후에 머무  
는 것으로 나타났다.

1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  
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 
2712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  
만6000명(0.4%) 증가하는 데 그  
쳤다.

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2월 10  
만4000명을 기록하며 1년9개월  
만에 10만명대로 떨어졌다. 3개월



연속 10만명대를 맴돌다가 5월에  
는 10만명선 마저 무너졌다. 6월  
에는 10만명 선에 턱걸이했지만  
여전히 부진하다.

최근 고용 상황은 금융위기 이  
래로 가장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  
고 있다. 당시 2008년 9월부터

2010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10만  
명대 이하를 기록했다.

제조업 일자리 부진이 전체 취  
업자 증가 폭둔화에 영향을 미쳤  
다. 제조업 취업자는 12만6000명  
줄어 석 달 연속 감소했다.

경기 영향에 따라 자동차·조선

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, 의복에  
서 감소한 것으로 통계청은 봤다.

도소매·숙박음식업 취업자는 1  
년 전보다 3만1000명 줄어 작년  
12월부터 7개월째 감소했다.

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 
업(16만2000명), 공공행정·국방  
및 사회보장행정(9만4000명), 금  
융 및 보험업(6만6000명) 등에서  
는 취업자가 증가했다.

임금노동자는 11만8000명 증가  
했다. 상용노동자는 36만6000명  
증가했으나, 임시노동자와 일용  
노동자가 각각 13만명, 11만7000  
명 줄어 발목을 잡았다.

(2면에 계속)

/세종=최신웅 기자 grandtrust@